

테마칼럼

남문외 제갈량

도시와 삶

지방마다 달라

일찍이 영결시

교통질서의 '선택과 집중'



노경수

단속의 강도에 따라 집중 견인구역, 상대견인구역, 일반단속구역 등을 색깔로 구분해 시행한다면 운전자도 인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교통소통의 목적도 도모할 수 있다.

지난달 하순에 광주·전남지역 건축전문가 그룹과 함께 일본 큐슈지역의 도시들을 방문하고 왔다. 일본 도시들에서 항상 눈에 띄는 것이지만 교통질서, 그중에서도 특히 주차차 측면에서 우리 도시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했다.

우리 도시와 달리 일본의 도시에서 무단·불법 주차차하는 자동차를 찾아 보기가 힘들다는 점은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 대부분은 공감할 것이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대 김민수 교수(미대 디자인학부)가 해외와 비교해 한국 도시미학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불연속의 키치(Kitsch, 가짜 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이비)화'라고 한 대목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자동차가 우리생활에 들어온 지 100년 남짓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공간적인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채 운용되는 '키치'화에서 무질서의 근원을 찾고 싶다.

최근 광주시 건설교통분과위원회가 발표한 '광주 신시가지 상업지역 도로 기능 재조망안 수립연구'의 결과를 보면 우리 주차차 문화의 현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신시가지의 도로마다 시간대에 상관없이 불법 주차차 행위가 만연해 도로의 기능이 마비되고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지만, 단속은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차차를 관할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는 터널 안과 다리 위, 소방관련시설 및 그 인근, 도로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에서 주차차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과 그 인근에서는 주차차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도로

에서의 위협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주차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물론 도로변에 그려진 황색실선은 주차차 금지, 황색점선은 주차차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쯤은 일반상식화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황색선이 교통량의 변화나 주변의 토지이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즉 언급이나 경중이 없이 모두 황색선이다. 그렇다보니 혼잡한 도로의 불법 주차차는 방치한 채 소통이 원활한 도로에서 단속을 당한 차량소유자들은 불만이 쌓이게 된다. 물론 행정도 소통에 중점을 두고 단속에 임하고 있었지만, 혹여 단속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행정편의주의가 개입한다거나 표를 의식해서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면 교통혼잡과 시민불만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단속에 대한 합리적 수용보다는 재수 없는 일을 당했다는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차공간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불법 주차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속하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묻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불법 주차차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차차 단속구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단속의 강도에 따라 집중견인구역, 상대견인구역, 일반단속구역 등을 색깔로 구분해 시행한다면 운전자가 인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교통소통의 목적도 도모할 수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의 규정항목을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에서 시작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교차로 중에서도 진입차선 수보다 진출차선 수가 적은 경우에는 혼잡이 가중되기 때문에 집중견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단속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시가지의 대상으로 한 요일별, 시간대별, 이용목적별 등의 세밀한 교통량조사를 통한 전문가의 대안 마련,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다.

정밀한 일일 교통량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혼잡한 첨두시간대에는 단속하고 소통이 원활한 시간대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지역도 지정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로변 상점가에 오가는 차량에 대한 시간대별 주차차 허용이라든지, 교통량이 적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주차 허용도 검토할 수 있겠다.

주차차 단속구역의 우선순위가 하위의 단속구역에서는 주차차를 허용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지만 현재의 무차별적 불법 주차차와 무원칙한 주차차 단속이 교통소통에 기여하는 바가 기대 이하라고 한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동차의 대수는 그 정점으로 인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통의 질서를 갖추는 길은 한정된 자원 하에서 '선택과 집중'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부, F1대회 지원 의지 있나 없나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 국제 자동차경주대회에 '빨간 불'이 켜졌다. 대회기간까지 불과 8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으나 아직껏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선임하지 못하고, 사무처 역시 중앙부처 인력이 빠진데다 애초 규모보다 대폭 축소돼 대회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는 11일 개소되는 조직위 사무처는 1본부 2부 6팀 체제로 총 32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는 애초 2본부 5부 12팀 체제, 인력 51명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더욱이 사무처 인력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소속은 단 1명도 없어 국가적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 경기장 건설 및 대회 운영예산 확보·대회 홍보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같은 사무처 축소와 중앙부처 인력 부재는 F1 대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정부는 처음부터 F1 대회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왔다. F1 대

회는 전남도가 지난 2006년에 유치했으나 지원법은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2년 이상을 끌다 지난해 9월에서야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정부는 조직위의 설치·운영과 대회 준비·운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로 F1 대회의 성공 개최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F1 대회는 연간 관중 수 380만명, TV 시청자 수 150개국 23억명이나 되는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고 있다. 단순한 지역행사나 아닌 국가적 대형행사이니 것이다. 만약 영암 F1 대회에 준비소홀로 차질을 빚는다면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은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F1 대회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속내를 알 길이 없다. 과연 F1 대회가 경성도 등 타지역에서 개최된다 해도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

도심 속 폐허로 방치된 '5·18 사적지'

광주시 서구 쌍촌동 옛 광주기무부대 부지가 도심 속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2005년 광주 기무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뒤 관리인이나 통제시설이 전혀 없어 성한 건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본부와 강당, 관사 등은 화재나 파손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 곳은 대표적인 5·18 사적지다. 1980년 기무부대원들이 민주인사와 5·18 학생 지도부를 감금·고문했던 역사의 현장이며 당시 신군부가 계엄군 지휘장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사적지는 원형 보존이 기본이다. 그러나 보존 소홀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돼 무법지대로 전락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5월 단체를 중심으로 3만3천여㎡에 달하는 옛 광주기무부대 부지를 5·18의 교훈을 일깨우는 교육마당과 휴식공간으로 꾸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방

부가 광주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감정 평가액이 170억원에 이르는 부지의 무상양여나 분할상환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허로 방치된 옛 기무부대의 모습은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5·18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산재해 있는 5·18 유적지는 99곳에 달하나 이들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사적지는 표지석만 세워져 있을 뿐 사실상 방치돼 있다. 학생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여졌던 광주교도소 역시 이전이 임박했으나 구체적인 건물과 부지 활용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5·18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과 행사가 펼쳐진다. 그러나 행사 준비 못지 않게 사적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無等鼓

출시도 전에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iPad)'가 네티즌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아이패드는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손안의 컴퓨터로 A4용지보다 작고 또 가볍다. 이메일과 전자책, 음악, 동영상, 게임 등 컴퓨터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담았다.

이 아이패드가 플랜 B의 산물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애플의 히트작 아이폰, 아이

폰과 20여 달러 가치의 기업으로 키워졌지만 배신과 다툼으로 결국 경영진에 의해 쫓겨났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굶지 않고 자신만의 공상을 플랜 B로 승화해 나가며 때를 기다린다.

애플의 새 CEO는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공상의 문화를 바꾸지 못하고 물러나고, 스티브 잡스는 다시 애플에 복귀, 플랜 B를 실현한다.

플랜 B



바로 모니터와 본체를 합친 아이맥(iMac)을 내놓아 추락하던 애플을 구원한다. 연이어 아이폰즈를 통해 음악 유통을 서비스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한때 체장암에 걸렸지만 오욕이 같은 불타랐을 때 준비하는 대안과는 다르다. 플랜 B는 위기가 오기 전, 즉 오늘, 지금, 매순간 상상하고 일깨워 세운 미래를 위한 발전전략이다.

스티브 잡스는 천자소송과 자유분방한 삶으로 주변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부모님의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는 애플을 10년 만에 4,000명의

를 합친 아이맥(iMac)을 내놓아 추락하던 애플을 구원한다. 연이어 아이폰즈를 통해 음악 유통을 서비스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한때 체장암에 걸렸지만 오욕이 같은 불타랐을 때 준비하는 대안과는 다르다. 플랜 B는 위기가 오기 전, 즉 오늘, 지금, 매순간 상상하고 일깨워 세운 미래를 위한 발전전략이다.

스티브 잡스는 천자소송과 자유분방한 삶으로 주변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부모님의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는 애플을 10년 만에 4,000명의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박병주

#1 29년 전 호주에서 팔과 다리 없이 아주 작은 왼쪽 발만 갖고 태어난 니 부이지치라는 장애인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행복해 보이고 아름답다. 신은 그에게 팔과 다리를 안 주셨지만 세계인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와 행복을 심어주고 있다. 니도 8살 때 그의 모습을 비판하여 목욕탕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 과정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다. 시련을 앞두고 인대를 다쳐 목발을 짚어야 했고, 그 와중에 맹장수술과 신종 플루로 병원 신세까지 졌으나 특유의 성실함과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했다.

영광 뒤에 숨은 가족의 희생도 빛난다. 김군의 어머니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아들과 고통과 시련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사람들

은 행복한 사람이다. #2 사자 첫 휠체어 검사기 된 양익준(31)씨이다.

도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다. 처음부터 세상이 '블랙'이었던 시각장애인 김군은 눈으로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어서 점자 악보를 따로 마련해 한마디씩 촉감으로 곡을 익혔다.

그는 1997년 수능시험 석 달 가량 앞두고 집 난간에서 실족하여 추락하면서 허반신이 마비됐다. 이 때문에 일단 진학을 포기하고 온 가족이 치료와 재활에 매달렸으며 남보다 늦게 2001년 연세대에 입학하였다.

대학 재학 중 공수특전대 입대한 마씨는 1981년 휴가 길에 불안정한 열차 운행이 결국 열차 추락으로 양팔을 잃었다. 고통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는 크리스천 부인을 만난 뒤 '희망진도사'가 될 것을 결심했다. 2000년 국내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땀다. 그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발자모(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발족하였다.

그의 학업과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온 가족이 고향인 경남 마산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아버지는 학교 인근에서 반지하 셋방살이를 하면서도 아들의 꿈을 위해 헌신하였다.

발자모 활동을 하면서 2004년 동사무소를 통해 무료 컴퓨터교육을 받은 마씨는 정보처리기능사와 워드프로세서·엑셀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고 있다.

양씨는 법조인이 돼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먹고 법학을 전공하였지만 가정형편과 장애인이란 신체의적 조건이 고시공부에 전념할 수 없었다. 그는 졸업 후 비싼 학원 강의 대신 교내 고시 강의를 반복해 듣는 방법을 택해 2007년 마침내 고시에 합격하였다.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체적적 장애도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던 그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 외에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생각 자체가 장애라는 사실이 아니다. 정신적 장애의 극복이 곧 행복의 길인 것이다.

<광주 열린 교회 목사>

#3 이야기 시각장애인으로 서울대 피아노과 첫 합격생이 된 김상현(19)군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명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고



이상길

최근 흥행 1순위 영화는 '아바타'다. '아바타'의 흥행은 멋진 시나리오와 기술의 조화가 이뤄낸 성과였다. 아바타는 3D 영상으로 제작, 상영되고 있는 데 3D 영상을 만들어 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영화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한다. 관객들이 할 많은 영화들의 성공비결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성 있는 등장 인물, 흡입력 있는 스토리에 있다는 것이다.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3D 영화 아바타가 흥행을 하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아바타와 실업해소

는 점이다. 소위 '3D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산업 영역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는 3D TV를 위한 박람회였다고 할 만큼 3D 관련 장비, 디바이스가 소개되었다. 가정에서도 3D 입체영상을 즐길 수 있는 3D TV와 입체안경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많은 영화가 3D로 제작 되고 그에 맞춰 사용자들을 위한 3D 관련 제품도 대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3D산업은 우리 광주 지역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문화산업은 고용효과가 어느 산업보다 높다. 매출액 10억 원당 통산업이 7명, 전기·전자업이 8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14명, 문화콘텐츠 산업은 1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고용효과가 뛰어난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 컴퓨터를 활용 이미지를 만드는 CGI산업은 특히 인력 고용효과가 높은 분야이다.

이런 점에 주목, 광주에서는 이미 2003년도부터 3D산업과 연계되는 CGI(컴퓨터 이미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지역 외 산도기업인 에네미스 등 6개사가 광주에 등지를 끌었고 지역 내 고용인력은 75% 증가,

지원받은 문화산업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57% 증가, 해외 투자 유치 1,390만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입주한 CGI관련 3개 업체는 사업 활성화를 따라 신규 수요 인력만 100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인력을 필요으로 하고 있다.

기술의 습득도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 '삼국지, 용의 부활' 등 3D기술을 활용한 국제적인 영화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서 제작 노하우를 습득했다. 최근 광주를 방문한 중국 국영필름 관계자들은 "미국의 대형회사에서나 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CGI기술을 광주에서 가

지고 있구나 놀랐다. 지역에서 이 정도 수준의 회사를 육성한 광주시의 정책은 우리 중국정부도 배우야 할 모범사례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장비도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2차원의 이미지를 3차원으로 변환시켜주는 장비인 렌더팜은 국내최대, 해외 전문가들도 보유하기 어렵다는 전문 저작도구인 렌더맨 보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해 지원시설도 계속 보강중이다.

2월에는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3D 입체영화를 즐길 수 있는 영상복합문화관이 개관되어 지역 업체들에게는 자체 프로그램의 홍보공간으로, 시민들에게는 광주 문화콘텐츠 체험 공간으로 제공된다. 2011년 모션캡처스튜디오와 글로벌 CGI 센터가 문을 열면 3D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각종 후방직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영화 '아바타'는 그런 점에서 우리와 무관할 수 없다. 먼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이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변화에 동참하면 지역민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전 세계에 '창조적인 도시·광주'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다. 뛰어난 인재와 좋은 기회-많은 구슬들이 우리 주위에 놓여있다. 이제 그 구슬들을 깨어 보물로 만들어야 할 때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